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8년 포어 §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요 3:16-17, 창 12:3. 마 9:35)

† 행동 지침 †

- 1.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는 거룩한 교회
- 2. 계대를 잇는 믿음의 가정들의 보편적 공동체
- 3.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적 교회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seoulchurch.or.kr>

 여호수아서 강해

여호수아의 준비II

(여호수아 1:1 - 11)

원로목사이종윤



III.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일했다 (5 - 6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셨다. 그 첫 째는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얻게 하시겠다는 것이요, 두 번째는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다. 여호수아는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일하는 자는 강해지고 담대해진다. 두려움은 불신앙의 결과다. 그것은 악마가 주는 독약과 같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다가오는 고난과 좌절, 갈등과 실패와 수치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권능을 믿고 강하고 극히 담대해야 한다(7절).

믿음이 없어 우왕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그의 권능을 믿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침 없이 믿음으로 행통의 복을 누리자.

IV.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7절)

우리의 인생행로는 잔잔한 강처럼 평탄할 때도 있지만 때로 풍랑이 일 때도 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 ①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할 것(talk about it)
- ② 주야로 묵상할 것(think about it)
- ③ 어떤 환경에서도 지켜 행할 것(do it)을 명령하셨다.

성경은 "주의 말씀은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이 지혜롭다"고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선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요동하지 않는다. 항상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생각하고 진리를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다.

V.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양식을 준비토록 했다 (11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먹이시던 만나를 가나안의 소산을 먹는 순간부터 끝이 났다.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수 5:12).

따라서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기 3일 전에 백성들을 향해 양식을 준비할 것을 명령했다. 교회와 성도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시켜야 한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일용할 양식도 구해야 하지만 죽음 너머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 영생할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모시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한다.

결론

하나님의 일꾼으로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여호수아에게는 영원히 변치 않는 것 세 가지가 있었다.

첫째, 그에게는 신앙과 생활의 규범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여호수아는 기록된 책의 말씀에 순종했다.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성공한 가장 중요한 열쇠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철저히 순종한 데 있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을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수 23:6)

둘째, 여호수아에게는 믿고 순종하는 생활이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싯딤에 머물다가 요단에 이르러 유숙할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과 권능을 믿고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도록 지시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제사장들로 하여금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물로 밟게 했다. 순종한 제사장들이 요단 물을 밟자 물이 끊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건널 수 있었다. 그 날 이후 여호수아는 백성의 지도자로 확고한 위치에 서게 되었다.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모세의 손이 오르고 내림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던 때를 목격한 여호수아는 언제나 오늘이나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백성을 지도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호수아가 가졌던 믿음과 두려움 없이 담대히 순종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셋째, 여호수아는 초자연적 지도자 되시는 하나님의 권위로 일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마 28:18)

모든 권세는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갖고 계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던 그 권세(권능)를 주시겠다고 하셨다. 여호수아에게 임했던 그 권능이 우리에게도 임하시도록 하자.

가나안 입성하기 전 여호수아는

- 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 ② 내부를 점령하고 있던 가나안 7족을 멸했으며
- ③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일했고
- ④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고
- ⑤ 백성들로 하여금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케 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행했으며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일했다. 오늘 우리 교회와 민족 사회에 이런 지도자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한다.

권사회 연합수련회

2월 21일 (수) 오후 3시. 웨스트민스터홀

2월 21일 (수) 오후 3시에 살롬 권사회, 권사회 연합 권사 수련회를 갖는다.

오후 3시부터 찬양으로 준비하여 3시 20분 경건회, 오후 4시부터 기도회 및 월례회를 가지고 5시에 강사로 김의창 목사를 모시고 특강을 갖는다. 주제

는 '시련 가운데 평강' (빌 3:17~4:9) 이다. 기도의 어머니로 평소에도 교회와 국가, 성도들을 위해 기도의 본을 보이는 권사회가 연합수련회를 통해 더욱더 그 사명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란다.

2018 겨울 성경학교

유아부 · 유치부 : 2월 25일(주), 3월 4일(주)

부 서	일 시	장 소	주 제	강 사
유아부	2월 25일(주)	서울교회	카다쉬 놀이터	김은숙 전도사
유치부	3월 4일(주)			



- 전 성도 성경 읽기표 -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 2독	확인
2월 18일	주일	민수기 14~15		사무엘하 7~13	
2월 19일	월	민수기 16~18		사무엘하 14~19	
2월 20일	화	민수기 19~21		사무엘하 20~24	
2월 21일	수	민수기 22~24		열왕기상 1~4	
2월 22일	목	민수기 25~26		열왕기상 5~8	
2월 23일	금	민수기 27~30		열왕기상 9~13	
2월 24일	토	민수기 31~32		열왕기상 14~18	



2018 성경 암송 대회

범위 : 허박국 전장
예선 : 9월 30일(주일)
본선 : 10월 12일(금)

2018년 성경암송대회 일정과 범위가 확정되었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 바란다.

- 교회학교별 성경 암송 대회(예선)
 - * 일시: 9.30(주)
 - * 암송범위: 허박국 전장(1-3장)
- 각 부서별 성경 암송 대회(본선)
 - * 일시: 10.12(금) 오후 7:00



교회 주차장 사용 안내

수요예배, 찬양예배 후 신속한 출차

수요예배와 주일예배 시 지하주차장을 개방하여 이용하고 있는 가운데 차량 위원의 지시를 따라서 질서 있게 주차하고 있다.

다만 수요예배와 주일 찬양예배가 끝난 후 주차장 정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자동차를 먼저 지상으로 옮겨주기 바란다.



매 주일 12시 40분 (2부예배 후, 504호)

중 · 고등부 자녀를 둔 부모님이나 손자녀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군복무자 · 입대 예정자 기도회

매월 첫째 주일
오후 3:30/802호

자녀가 군복무중이거나 군복무 예정인 모든 성도 · 가족들을 환영합니다.





웃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올 초 서울교회 교육전도사로 부름을 받은 김은숙 전도사는 영아부·유아부·유치부를, 박미라 전도사가 유년부·초등부 지도를 각각 맡고 있다. 김은숙 전도사와 박미라 전도사를 중심으로 영아부·유아부·유치부·유년부·초등부가 올 한 해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의 관심과 뜨거운 기도 부탁드립니다 (편집자 주)

영아부·유아부·유치부

수년 전 서울교회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떠난 후 오늘 여기에, 다시 불러 주신 교회 앞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7년이라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여전히 변함없는 모습들에 대한 고마움과, 참 많이 변해 있는 모습들에 대한 낯설음으로 다시 만난 서울교회, 그리고 영·유아·유치부를 생각하며, '네 사명이 무엇이나?' 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김은숙 전도사 가정

결코 가볍지 않은 기도와 묵상의 시간 속에서, 자신의 질병을 고침 받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갔던 한 여인의 심정, 그 간절함이 영·유아·유치부 시간들을 맞이하며 내내 떠올랐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만으로 기뻐 뛰며 춤을 추고 찬양하는 영유아유치부에 대한 간절함, 추억과 삶의 한 지평에서 만났던 서울교회의 모든 예배의 순간들이 결코 기억 저편의 시간들로 그치지 않길 바라는 간절함, 예배를 통해 넘치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일하는 성령님만 의지하는 간절함, 어린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이기 원하는 간절함! 이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영·유아·유치부와 저에게 주시는 사명과 비전으로 붙들습니다. 그것 말고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어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대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서, 오늘도 그 '간절함'을 함께 붙들고 영·유아·유치부는 예수님 발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땅의 어린이가 모두 구원을 얻도록

영아부·유아부·유치부

마이크는 소리를 전달하는 목적이 있는데 어느 날 더 이상 남의 소리만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기 싫다고 고집을 부린다면 녹슬어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모든 것에는 의미가 있듯이 나의 삶에 부여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롤루랄라-랄랄라 ♪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저에게 주신 사명은 이 땅의 모든 어린이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이 최고의 스펙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품으신 꿈을 발견하도록 돕는 것과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이 저의 역할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박미라 전도사 가정

활짝 열려있는 유·초등부는 낯설지 않았습다. 오래전부터 함께했던 아이들과 선생님들처럼 익숙한 공간과 아이들의 에너지가 저에게로 다가왔습니다. 사랑으로 아이들을 섬기시는 선생님들의 모습으로 인해 예수님의 향기가 온 유·초등부를 감싸고 아이들의 크고 작은 재잘거리는 소리와 움직임과 보고 있으면 행복의 날개를 달고 서로에게 아름다운 하모니로 전달되었습니다. 존재 자체가 사랑인 아이들의 귀한 발걸음이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예배드리러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 둘씩 벗어 놓은 신발들을 신

발장에 올려놓을 때도 그냥 좋습니다. 매사에 적극적이고 연약한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들로 성장하길 바라며 어린 영혼을 위해 항상 이름을 부르며 매일 기도할 때 마다 이렇게 예쁘고 멋진 아이들을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슴이 벅차옵니다.

아이들과 거리를 좁히기 위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20년 가까이 입게 된 슈퍼맨 옷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랑의 연결고리입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슈퍼맨이 왜 날지 않느냐고? 으흠.. 그것은 이 땅에 모든 어린이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으면 그때 하나님 나라로 날아갈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하면 아이들은 잠시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는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아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씀을 통해 구원이 얼마나 특별한 은혜인지 명확히 알아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고 이 시대를 밝혀나가는 따뜻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통해 지금 이 시대 사도행전을 쓸 다윗과 같은 사람을 찾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유·초등부에서 나오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사순절 묵상

닭은 우는데...

신동기 권사 (12교구, 시인)

나는 모른다고
정말 모른다고
구차히
목숨을 구걸하더니

그래도
모른다고
저주하며 부인하던
욕망의 여윈 너 시몬아!

어찌
죽음만도 못한
목숨의 크기가
그 사랑의 전부였더나

닭은 우는데
하늘의 뇌성이
피속에서 외치고
심장에서 터지는 울음이
통곡의 바다를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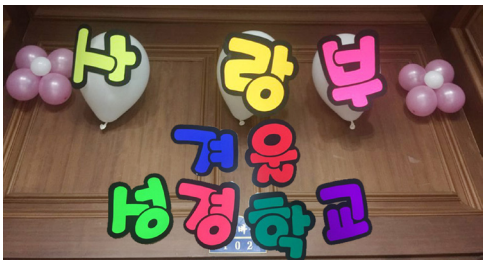
빌라도 뜰
배신의 입맞춤으로
해는 목이 매여 빛을 잃고
땅이 혼돈하여
붉게 소용돌이 친다

골고다 언덕
높이 달린 십자가!
그 피로
웃자란 육체를
분토처럼 씻어버리고

동이 트기 전
오직
눈물로 하얗게 부서져 내린 맨 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 양을 먹이라.



사랑부 겨울성경학교



등정

- 이종윤원로목사는 2월22일(목) 자유민주국민연합 원로 회의에 참석한다.
- 연주회: 4교구 백경화 권사(가브리엘 찬양대 지휘자, 당진시립 예술단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2018 NEW YEAR'S CONCERT 오페라 갈라콘서트 2월 22일(목) 오후 7:30 당진문예의전당 대공연장. 관람을 원하는 성도는 가브리엘 찬양대에 문의 바랍니다.
- 금주의 식사: 전훈덕 안수집사, 정혜승 집사 가정 (정병무 은퇴장로의 생신을 감사하며)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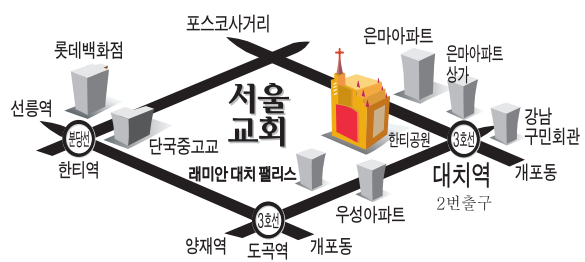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2월 21일(수) 모이는 권사회 연합수련회를 통하여 모든 회원들이 큰 은혜 받고 성도들을 더욱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2. 2월 25일(주)과 3월 4일(주) 모이는 유아부 유치부 겨울성경학교를 통하여 어린이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3. 나라의 지도자들과 온 국민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거짓과 불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장소	
주일 예배	I 부 예배	오전 9시	
	II 부 예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배	오후 2시	
	찬양 예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20분	8층(802호)
수요 예배	II 부 예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매일)	인터넷 영상

교회 오시는 길



서울교회QR코드

